

10월 1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1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지수, 1년만에 1만선 돌파 `감격`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14일(현지시간) 1년만에 1만선을 회복했음.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과 JP모간체이스가 `1만선` 탈환에 앞장섰음. 다우 지수는 144.80포인트(1.47%) 상승한 1만15.86을, 나스닥 지수는 32.34포인트(1.51%) 오른 2172.23을, S&P 500 지수는 18.83포인트(1.75%) 상승한 1092.02를 각각 기록했음. 기술업종 대표주인 인텔의 실적호재가 큰 호재로 작용했음. 인텔의 3분기(6~8월)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4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투자자들이 크게 반겼음. 은행주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JP모간체이스도 이날 반등의 주역이었음. JP모간체이스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급증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음.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좋았음.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5% 감소했지만 예상치(-2.1%)보다는 작았음. 특히 변동성이 큰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높은 0.5%의 증가세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9월 소매판매를 호재로 인식했음>
`인텔 효과`로 기술주 강세	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칩 메이커인 인텔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선사하며 시장 강세를 이끌었음. 칩메이커의 실적이 기술업종의 선도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에 인텔의 실적개선은 기술주 전반에 큰 호재로 작용했음. 인텔이 전날 장막감 직후 공개한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전년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음. 특히 인텔은 4분기 매출이 최대 10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음.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10억달러나 웃도는 수치임. 인텔의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실적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냈음. 또 미국의 9월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야후는 감소했음. 이 영향으로 구글과 마이크로가 오름세를 보였음.
물가는 안정..수입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낮아`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9월 수입물가가 전월비 0.1% 상승했음.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증가폭은 전월 1.6%(수정치)은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도 밑돌았음. 블룸버그통신의 조사로는 당초 9월 수입물가가 0.2%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음. 수입 원유가격이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던 마키 바클레이즈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달러약세가 수입물가를 올렸다"고 평가했음.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물가변동률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돼 인플레이에 대한 연준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는 설명임.

제목	주요 내용
달러 약세로 유가 반등..금값은 주춤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인 배럴당 75달러선까지 상승했음. 이 영향으로 셰브론과 엑손모빌 등 에너지 전반이 오름세를 기록했음. 중국의 9월 수출감소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점도 원유시장에선 호재가 됐음. 달러화 약세로 구리값도 상승해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오름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금값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가격부담으로 소폭 밀렸음. 이 영향으로 금광주의 모멘텀은 둔화됐음. 다만, JP모간체이스의 존 브리지즈 애널리스트는 "미 달러화가 1~2년간 약세를 보이며 금값을 올릴 것"이라며 바티콜드와 골드코프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음.
금값, 가격부담으로 약세 전환	금값이 14일(현지시간) 달러약세를 호재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가격부담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10월물 가격은 낮 12시50분 현재 온스당 3달러(0.27%) 떨어진 1062달러선을 나타내고 있음. 금 10월물 가격은 미 달러화가 14개월래 최저치로 재차 밀린 영향으로 오전 한때 사상 최고가인 1070.2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음. 그러나 올들어 금값이 20% 안팎 급등한데 따른 부담감으로 금값이 장중 소폭 되밀렸음.
美 경제전문 미디어그룹 덩치키우기 경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로 인해 미국 언론업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 미디어그룹들이 덩치키우기 경쟁에 나섰다. 뉴욕에 본사를 둔 톰슨로이터스는 14일(현지시간) 브레이킹뷰스닷컴에 인수 제안을 했다고 밝혔음. 브레이킹뷰스는 자체 웹사이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신문의 비즈니스면을 통해 경제 뉴스와 관련한 논평을 전하는 매체임. 톰슨로이터스는 브레이킹뷰스의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음. 톰슨로이터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논평 부문을 강화할 수 있게 됐음. 브레이킹뷰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렉스칼럼이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허드온더스트리트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임. 캐나다 정보제공업체 톰슨코퍼레이션과 영국 로이터통신이 합병해 지난해 출범한 톰슨로이터스는 최근 잇단 M&A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톰슨로이터스는 앞서 지난 8월 빅데이터 서비스업체인 바유테크놀러지스를 인수했음. 또 9월에는 유럽 홍보대행업체인 후긴그룹을 사들였음. 블룸버그도 M&A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금융위기로 인해 월가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금융데이터 사업이 타격을 입자 기자 확충을 통해 보도부문을 강화하고 있음. 블룸버그는 맥그로힐로부터 80년 전통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를 인수키로 했음.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1929년 창간호에서 2주 후에 일어날 대공황을 예견한 것으로도 유명함. 그러나 포천, 포브스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영향력은 약화됐음. 아울러 경기후퇴로 따른 광고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왔음. 올들어 9월까지 비즈니스위크의 매출은 40.6% 줄었음. 이는 매거진 산업 전반의 매출 감소폭 20.3%를 웃도는 수준임. 이에 따라 지난해 4300만달러 적자에 이어 올해도 60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블룸버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 가격은 약 500만달러이며, 비즈니스위크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